Hana Infinity

하나은행

2025 April

FX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금 리

3월 동향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경기침체 감수 언급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 미친 가운데 연준의 관세 관련 인플레 둔화 가능성 속 성장 전망 하향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영향 반영되며 월 후반 큰 폭 하락

미 관세 이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1월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 출발 후, 중국 양회 결과와 유럽 경제의 긍정적 기대감 등으로 상승 후 소폭 하락 전환

■ 월초, 미국 관세 부과 수위가 강해지며 경기 우려가 강화된 가운데 국내 1월 경기지표 부진이 더해지며 하락 출발 후, 중국 양회의 5% 성장 가능 제시, 유럽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 하지만 연준 이사의 도비시한 언급 이후, 재차 하락 전환한 형국 시현

- 월 초,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경기지표 부진 등이 더해지며 하락 출발
- 그러나, 중국 양회에의 '25년 5% 성장 제시와 유로존 경제의 전쟁 종전 이슈에 따른 긍정적 기대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했지만, 이어진 연준 이사의 도비시 언급에 재차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한 경기침체 용인 언급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3월 FOMC의 미국 성장 전망 하향 등도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 중반, 미 관세에 대한 트럼프 경기침체 감수 언급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 미친 가운데 3월 FOMC 이후 연준 성장 전망 하향 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하락 연동하며 추세적 하락 시현

- 중반,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행이 과도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견인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양상 시현. 여기에 미 2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양상
- 3월 FOMC에서 동결 결정과 점도표 2회 유지에도 성장률 1.7%로 하향함에 따른 경기 우려 반영된 측면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이어 국내 정치리스크 등에 대한 경계감 속에 박스권 흐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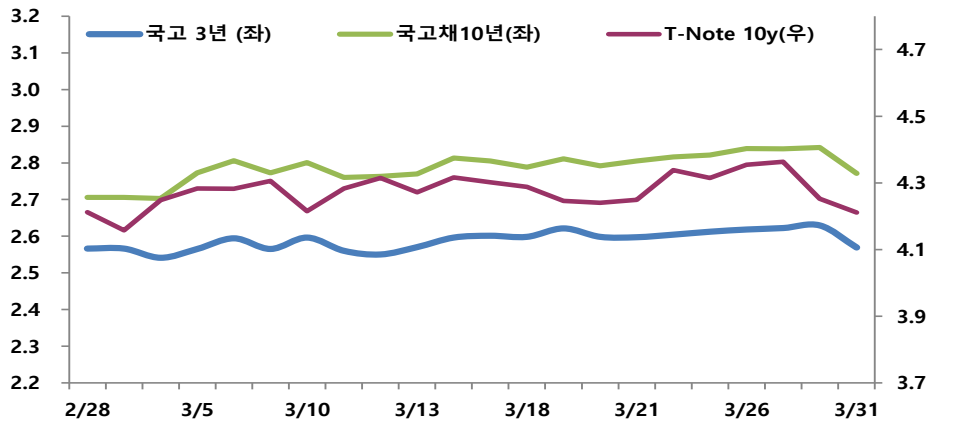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4.2일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둔화에 연준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크게 확산되며 국내외 금리 하락 마감

■ 후반, 3월 FOMC에서 성장전망 하향에 따른 영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상호 관세 부과에 의한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부각 등으로 미 국채금리 큰 폭 하락에 연동하며 마감

- 후반, 3월 FOMC는 금리 동결과 점도표 목표 범위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연간 성장 전망을 1.7%로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미 국채 금리 하락 속 국고채 금리도 연동 흐름 보이며 소폭 하락 시현
- 이어 관세 행정명령 서명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둔화가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심각한 경기침체 우려 또한 대두되면서 미 국채 금리 큰 폭 하락 속 국고채 금리도 연동 흐름 보이며 마감

3월 평균
국고채(3년): 2.59%
T-Note(10년): 4.28%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4월 전망

미 관세 본격 시행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부각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통해 국내외 금리 하락 지지할 요인이나, 연준과 한은의 다소 매파적 기조 영향 반영 등이 금리 하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1Q25	2Q25	3Q25	4Q25
국고채(3y, %)	2.55(F)	2.50(F)	2.40(F)	2.35(F)

연준 기조가 관세 정책 이후 침체 대응으로 다소 이동한 기조이나 여전히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물가 둔화폭 약화 등으로 당분간 매파 기조 이어갈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하단 제한 요인

■ 미국 관세 정책 실질적 발효 이후, 연준 기조는 인플레에서 침체 대응으로 조금씩 무게가 이동된 양상. 그럼에도 경제 데이터는 관세 영향에도 침체 논하기에 아직은 견조하다는 매파적 견지를 다소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이 국내외 금리 하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 미 행정부 관세 정책 이후 연준은 관세가 이미 경제에 영향 중이며 이를 전망에 기반영하면서도 물가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나 불확실성은 상당히 증대된 것으로 판단. 이에 연준은 침체 대응에 대한 주의를 높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 데이터 견조함 피력한 측면은 다소 매파적으로 판단
- 분명, 연준은 관세 이슈에 의한 침체 대응 주의력을 높였지만, 현 단계에서 추가 완화를 논하기에 현 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매파 성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전월말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주요국 상호 관세 이슈 중 특히, EU와는 상호적 보복 관세 등 소위 전쟁 양상 띨 가능성 등이 미국과 EU의 침체 우려 야기,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 미칠 전망

■ 미국 관세 정책은 주요 수출 국가들 성장률 하방 압력 높일 요인으로 보임. 특히 EU와는 관세 전쟁 확대까지 예상되며 이 영향의 부메랑이 심각한 미국 경기 침체 야기할 수 있을 것이란 시장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

- 4월 미국 관세 정책은 그간 트럼프가 이야기한 경기 침체 과도기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특히, EU에 대한 상호 관세 이슈는 관세 전쟁으로 부각될 가능성 속 미 경기 침체 부메랑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의 시장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4월 국고채(3Y) 금리는 2.50%-2.65%

■ 3월 국내 재난 등 영향으로 국내 경기 모멘텀에 대한 보다 약화 예상되나 대외적 미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 한은의 다소 매파적 통화정책 예상 등이 국고채 금리 하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지난 3월 후반, 대내적 심각한 재난 상황 발생에 따라 그간 약화된 경기 모멘텀이 추가적인 소비 부진 등을 반영할 가능성 상존. 이에 기존 추경에 추가 규모 확대 가능성 등은 전월 후반 급락한 국고채 금리의 추세적 하락을 제한할 전망
- 한은 통화정책이 국내 경기 부문 초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최근 미 관세 관련 환율변동성 확대 우려 등으로 성장 하방 압력에 대해 재정지출을 포함한 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 등이 매파적으로 비춰질 가운데 역시 국고채 금리 하단 제한요인으로의 작용이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중부 유럽 전쟁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감 유입 • 국내 경기 약화에 대응한 추경 통한 정책 공조 영향	• 최근 미국 소비, 제조 관련 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 한은의 경기 중시 정책 및 추가 금리 인하 전망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달러/원 환율

3월 동향

3월 FOMC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영향 고려 등에 따른 성장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4월 자동차 관세 부과 불확실성 및 국내 탄핵정국 리스크 지속 등으로 1,470원대 상향

미 관세 이슈 불확실성 지속하는 가운데 중부유럽 전쟁 종전 기대와 미 민간 고용 부진으로 원화 강세 흐름 보이다 2월 고용지표 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단 지지된 국면

■ 월초, 미 관세 이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 강세 반영 출발 후, 중부유럽 종전 기대에 따른 유로 강세 및 미 민간 고용 부진으로 원화 강세 전환. 이후 캐나다 등에 관세 유예 및 유로 강세 영향 등으로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며 원화의 소폭 강세 흐름 지속된 양상

- 월초, 미국 관세 이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원화에 위험회피로 영향을 미치며 환율 상승 출발. 이어 중부유럽 종전 기대에 따른 유로 강세 영향 반영 및 미국 민간 고용 부진으로 원화 강세 전환
- 이후,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 유예와 유로 강세 영향 반영되며 환율은 하락했지만 여전한 관세 정책 이슈와 2월 미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강화 등이 하단 지지한 형국

3월 FOMC 결과가 금리 동결과 성장전망 하향. 물가 상향에도 점도표 유지의 다소 비둘기적 기조로 평가되었지만, 주요국 관세 압박과 대재적 정국불안 증폭으로 원화 약세 흐름 확대

■ 월 중반, 관세정책의 경기침체 관련 트럼프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에도 원화에 대한 영향이 배제된 가운데 FOMC의 금리 동결 속 연준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영향과 국내 정국 불안 요인 지속 등으로 상승 지속 양상 시현

- 중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침체 유발 용인 시사 등이 환율 상승 압력을 높였으나, 중부유럽 종전 가능성으로 다소 환율 안정화. 여기에 2월 CPI 감소도 달러 약세 견인했지만, 주요국에 대한 미국 관세 압박(철강 25%, 대EU 관세) 등으로 재차 원화 환율은 1,450원대 중반 이상에서의 흐름 시현
- 이후, 다수 중동 리스크 확대에 원화 시장 위험회피 강화 움직임 나타난 가운데, 3월 FOMC 금리동결에도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등 둔화 우려 반영과 탄핵정국 리스크 고조 등으로 1,470원대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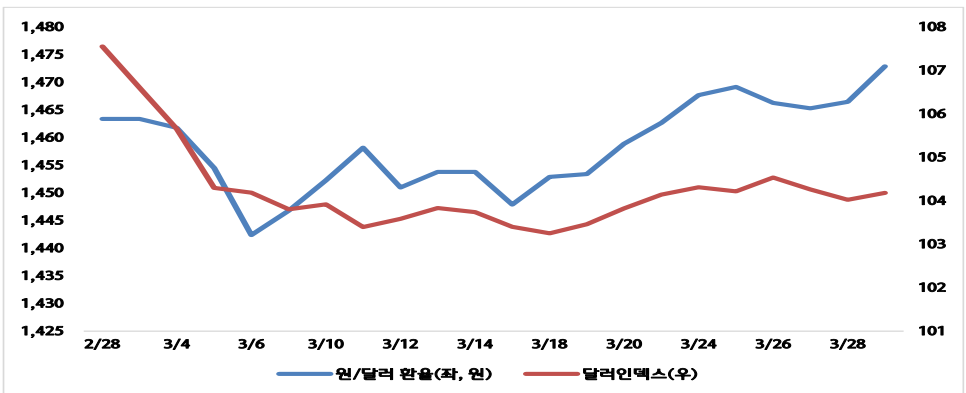
미 성장 전망 하향에 따른 위험회피 영향 반영과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시행 명령의 4.2일 발효에 대한 우려, 국내 정치리스크 지속 등으로 상승

■ 후반, 3월 FOMC에서 미 성장률 하향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영향과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행정명령 서명, 국내 탄핵정국 불확실성 등으로 1,460원 중반 흐름 속 마감

- 후반, FOMC 회의에서 성장 전망을 1.7%로 하향함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ECB 총재의 관세 위협에 따른 불확실성 속 유로 성장 약화 언급 등 유로 약세에 의한 달러 강세 반영되며 1,460원대 상향
- 여기에 4.2일 발효 자동차 관세 행정 명령 서명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으로 1,470원대 초반 마감

3월 달러/원 평균환율
: 1,458.2
3월말 달러/원 환율
: 1,472.9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4월 전망

국내 정치 현안 경로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과 미 자동차 및 상호 관세 등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부정적 정책 영향에 따라 원화는 유의적인 약세 영향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평균	1Q25	2Q25	3Q25	4Q25
달러/원 환율(원)	1,440(F)	1,470(F)	1,420(F)	1,410(F)

월 초, 미국의 주요국에 대한 자동차 및 상호 관세 부과 이슈가 월 중으로 달러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4월 발효되는 자동차, 상호 관세 정책 영향이 달러 변동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경우 환율은 1,500원대 근접이 예상

- 4월 초, 미 행정부의 자동차 및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따른 영향이 달러 가치 변동성을 동반할 가운데 주요국 포함,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원화가치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물론, 국내 자동차 관세 관련한 부분이 선제적 대응한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관련 유예 등이 그간 관세 발효 과정에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일시 원화 가치 반등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월 중 전반적 원화 약세 예상

미국 관세 정책의 체계적 위험 외 국내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인 정치리스크 향방 영향에 따라 환율은 1,450-1,500원 사이 등락 예상 속 정치리스크가 완화되는 호재에도 하단 1,440원 수준에서 제한될 듯

■ 국내 정치리스크 방향성은 4월중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후 정국방향성에 일정 부분 불안정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여전히 '대외신인도' 저하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국내 정치리스크는 4월 중 상당 부분 해소가 예상. 다만, 탄핵 기각 시, 국내 정치 시계는 이념간 혼돈 극대화 예상. 이는 '대외신인도' 저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부정적 수급 요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반면, 탄핵 인용 시, 환율은 1,450원대 하향이 예상. 하지만, 이 경우 인용 호재보다 남은 정치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경기 모멘텀 여력에 시장의 부정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어 보임. 이에 환율은 1,440원 전후에서 하단 제한이 예상

4월 달러/원 환율 1,465원 ~1,490원 예상

■ 미 관세 이슈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 가치는 약세 방향성 지지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원화 가치는 미국 침체 우려 시점 우선적 위험회피 영향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내적 경기 활력 약화까지 겹쳤다는 점이 원화 약세를 견인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4월 미 자동차 및 상호 관세 정책은 선별적 국가에 대한 관세 유예 요인 및 경기침체 야기 우려 등에 따른 시장의 연준 완화정책 기대 반영 시점 약세 기조가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 있을 전망
- 그럼에도 미국 경기침체 우려 극대화 시점 야기 시, 국내적 경기 활력 모멘텀 약화까지 더해진 상황에서의 위험회피 강화 요인의 선제적 반영 등으로 약세 탄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1,490원 수준에서의 연금과 환헷지 등 외환당국 경계심리 강화 등은 상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미국 관세 행정 명령 발효의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 헌재 결정이 부정적일 경우 국내 이념 갈등 극대화 • 미 관세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영향 반영	• 헌재 결정이 긍정적일 경우 환율 하락 예상되나 하단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 예상

자료: 하나은행

연구위원 서정훈(seojh@hanafn.com) |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종통화

엔/원 전망

최근 물가 상승률 3.65% 기록 속 임금 선순환 기대 등으로 성장 기대감 높아진 국면. 이에 대한 시장 및 BOJ의 조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 발효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 등이 엔화 강세 다소 지지할 전망

3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7.9
3월 엔/원 평균환율
: 873.4

■ (엔화 동향) 미 관세 정책 리스크와 경기둔화 조짐 등이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하며 강세 출발. 하지만 주요국가 관세 부과 유예로 위험회피 분위기 진정 속 약세 전환. 하지만, 중반 트럼프의 경기침체 용인 언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재차 강세 보였지만, 3월 금정위 결과가 시장 예상만큼의 긴축의지로 인식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기업들 달러 실수요 유입 등으로 상승. 이어 월 후반, FOMC의 비둘기적 영향과 BOJ 금정위의 금리인상 지지 언급에도 엔화 수급 실수요 유인 등에 따라 상승 추세 보이며 마감

4월 엔/원 예상범위
: 980-995원

■ (엔/원 전망) 일본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선순환 구조 강화 속에 성장 기대가 높아진 양상 여기에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뿐 아니라 BOJ의 조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엔화 강세 견인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 미국 관세 부과 현실화로 미국과 주요국간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도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 자극하며 강세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일본 전월 물가상승률이 3.65% 나타낸 가운데 임금 상승과 선순환 양상을 보이며 일본 경제 성장 기대를 높이는 상황. 이에 시장과 BOJ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은 엔화 강세 지지 요인
- 여기에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또한 엔화 강세 요인으로 판단. 다만, 관세 영향의 연준 긴축 견인 가능성은 엔화 강세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엔/원 환율은 상대적 원화 약세 지속에 990원 흐름 예상

유로/원 전망

전월의 유로 경기 모멘텀 강화 요인이 지속하겠지만, 4월 들어, 미 관세 정책 갈등 격화가 EU에 집중되며 상호 보복 관세의 무역 전쟁 확대 가능성 상존 등이 유로화 소폭 약세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3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761
3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84.6

■ (유로화 동향)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확대와 독일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 설치, 부채 제한 완화 정책 등이 유로 강세 견인 출발. 중반 트럼프 침체 용인 언급에 달러 강세 흐름 반영 후 이내 중부유럽 전쟁 종전 기대와 독일 인프라 재정 확대 법안 통과 임박 소식 등으로 강세 시현했으나, 터키 정국 불안과 미 관세 우려 재부각으로 재차 하락. 월 후반 들어서도 미국 관세 압박에 따른 유로존 성장 우려 등으로 2주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약세 회귀보이며 마감

4월 유로/원 예상범위
: 1,580~1,605원

■ 유로화는 독일의 인프라 투자 등 재정 확대 및 중부유럽 전쟁의 종전 가능성 등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 등이 강세 견인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4월 미국 관세 정책 갈등 확대가 유로에 집중될 가능성 등이 성장모멘텀을 상쇄할 수도 있을 전망 속에 전월 단기 급등세의 일부 되돌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중부유럽 종전에 대한 트럼프의 러시아 압박 및 독일의 인프라 투자 특별재정 확대 등은 전월에 이어 유로존 성장 모멘텀 강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ECB총재 언급과 같이 미 관세에 의해 유로 성장률 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 요인이 상존한 점 등은 상기 유로 강세를 상쇄하며 약세 전환에 영향 미칠 수 있을 전망. 유로/원 환율은 상대적 원화 약세 속에 1,600원대 소폭 상회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5년 4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1%로 25bp 인하 OPEC+ 점진적인 증산 전환 EU, 철강 수입량 최대 15% 감축 [기업] 나우로보틱스 수요예측(~7) 한 3월 수출/입(YoY +1.0%, +0.2%) S&P 글로벌 제조업 PMI(49.9) 미 2월 건설지출(MoM -0.2%)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7740k) 3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2** 2025 상반기 재보궐 선거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부과 :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는 제외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논의 한 3월 CPI(MoM +0.3%, YoY +2.0%) CPI 근원(YoY +1.8%) 미 2월 제조업수주(MoM +1.7%) 내구재 주문[F] 3월 ADP취업자 변동(77k)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자동차] 현대차/기아 3월 도매판매 데이터 미 3월 Challenger Job Cuts(YoY +103.2%) 중 3월 Caixin 종합 PMI(51.5) Caixin 서비스업 PMI(51.4) 유 2월 PPI(MoM +0.8%, YoY +1.8%) 3월 HCOB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3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4 미국 고용보고서** [휴장] 중국, 홍콩(청명절) [자동차] 현대차/기아 3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미국 3월 판매 데이터 미 2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51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140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4.1%) 시간당 평균 임금(MoM +0.3%) 경제활동 참가율(62.4%)	**5**
6	**7** 미 2월 소비자신용지수 유 2월 소매판매(MoM -0.3%, YoY +1.5%) 4월 센텍스 투자자기대지수(-2.9) 일 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일 실질 임금총액 전년비 독일 수출, 수입 SA MoM 홍콩 외환보유액 발표	**8**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미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100.7) 미 소비자 신용지수 일 3월 경기관찰조사 현행, 전망(45.6, 46.6) 호주 NAB 경기지수, 경기기대지수 호주 웨스트팩 소비자기대지수	**9 지준일** [기업] 바이오비쥬 수요예측(~15)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2025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11) 한 3월 실업률(2.7%) 중 3월 통화공급 M2(YoY +7.0%) 일 3월 소비자기대지수(35.9)	**10 옵션만기일, 미국CPI** 옵션만기일 [자동차] 중국 3월 판매 데이터 [IT] TSMC 3월 매출 발표 [채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미 3월 CPI(MoM +0.2%, YoY +2.8%) CPI 근원(MoM +0.2%, YoY +3.1%)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1.2%) 중 3월 CPI(YoY -0.7%), PPI(YoY -2.2%) 일 3월 PPI(MoM +0.0%, YoY +4.0%)	**11** FTX 채권자 2차 상환일 한 4월 1~10일 수출/입(YoY +2.9%, +7.3%) 미 3월 PPI(MoM +0.0%, YoY +3.2%) PPI 근원(MoM -0.1%, YoY +3.2%)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3월 통화량 M2(YoY +1.2%)	**12** [월중]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1) 미 재무부가 반기에 한번 발표하는 보고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등을 평가 (2)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정부, 중국 단체관광 한시 비자 면제 시행계획
13	**14**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중 3월 수출/입(YoY +10.7%, +1.0%) 중 무역수지 일 2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 영 라이트무브 주택가격 전월,전년비(-4.21) 뉴질랜드 서비스업 NZ PSI 한 KTB 입찰(10년) 캐나다 도매판매 MoM	**15**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국가 조치 발효 : 한미,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해결 위한 협의 [채권] 미국 1년물 국채 입찰 [IT] 관세청 월간 수출입 무역통계: MLCC 한 2월 통화공급 M2(MoM +0.5%) 미 3월 수입물가(MoM +0.4%, YoY +2.0%) 수출물가(MoM +0.1%, YoY +2.1%) 4월 뉴욕주 제조업지수(-20) 유 2월 산업생산(MoM +0.8%, YoY +0.0%) 4월 ZEW 서베이 예상(39.8)	**16 ECB 통화정책회의(~17)** [ECB 통화정책회의(~17)] (1)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50%로 25bp 인하 하며 5회 연속 금리 인하 단행 (2)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9%로 하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3%로 상향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한 3월 수입물가(MoM -0.8%, YoY +4.6%) 수출물가(MoM -0.6%, YoY +6.3%) 미 3월 소매판매(MoM +0.2%) 소매판매 근원(MoM +0.3%)	**17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75%로 25bp 인하 미국의 관세 정책, 경제 둔화 우려 등에 대응 (2)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로 하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9%로 제시 미 3월 주택착공건수(MoM +11.2%)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일 3월 수출/입(YoY +11.4%, -0.7%)	**18** [휴장] 미국, 독일, 영국, 홍콩, 프랑스(부활절) 일 3월 전국, 국내 CPI 일 3차 산업지수 MoM 중 외국인직접투자 YoY 미 모기지 금리(30년, 15년) 이탈리아 무역수지, 경상수지	**19**
20	**21** [휴장] 독일, 영국, 홍콩, 프랑스(부활절) IMF/WB 연례 춘계 회의(~26) 한 4월 1~20일 수출/입(YoY +4.5%, +1.4%) 미 CB 경기선행지수 MoM 중 1년, 5년 대출 프라임 금리	**22**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한 3월 PPI(YoY +1.5%) 미 4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준 경기현황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캐나다 PPI(YoY, MoM) 홍콩 실업률(계절조정)	**23 Beige Book** 연준 베이지북 공개 [자동차] 유럽 3월 판매 데이터 [채권]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3월 신규주택매매, 건축허가[F] 4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P] 유 2월 건설 생산(MoM +0.2%) 4월 HCOB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P] 일 4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24** 한 1Q GDP[A](QoQ +0.1%, YoY +1.2%) 미 3월 기존주택매매(MoM +4.2%) 4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일 2월 동행지수, 선행지수[F] 3월 PPI 서비스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 예측지수 스위스 경제심리지수 영 CBI 사업 낙관지수	**25 미국 AACR(~30)** 미국 AACR(~30) : 미국 암연구협회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연구 학술대회. 국내외 기업들의 차세대 항암제, ADC 등 분야 연구 성과 발표 기대 [IT] 3월 DRAM 가격 동향 발표 미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4월 도쿄 CPI, CPI 근원	**26**
27	**28** 캐나다 조기 총선 2025 미국 정보보안 전시회(~5/1) 2025 일본 뷰티월드 전시회(~30) [IT] Counterpoint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 미 4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홍콩 무역수지(수출, 수입 YoY) 프랑스 실업수당청구, 중 구직자수	**29** [휴장] 일본(쇼와의 날) 메타, 라마콘(생성형 AI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미 3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4월 소비자기대지수[F]	**30 BOJ 금융정책위원회(~5/1)** [BOJ 금융정책위원회(~5/1)]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5%로 동결하고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높아졌다고 언급 (2) BOJ는 일본 경제가 임금 인상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 미 3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4월 ADP취업자 변동 MNI 시카고 PMI 1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A] 중 4월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은행